



이대호와 T-오카다는 오릭스의 4번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오릭스 오카다 감독은 "T-오카다가 이대호처럼 상황에 맞는 배팅을 해야 한다"며 둘을 비교했다. 이대호가 2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삼성과의 연습경기에서 2루타를 치는 모습.

오카다 "T-오카다, 이대호에게 배워!"

(오릭스 감독)

(2011 시즌 오릭스 4번타자)

T-오카다 큰 스윙 욕심 작전과 똑같이 무리하지 않고 볼넷 얻는 이대호 완벽 상황에 맞는 배팅·선구안 등 본받아야



오카다 오릭스 감독

"이대호에게 배워라."

한때 T-오카다(24)는 "4번 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다"고 공공연히 밝힐 정도로 새 멤버인 이대호에 대해 경쟁의식을 드러냈다. 이대호는 이에 대해 "같은 선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한때 T-오카다가 이대호와 함께 오릭스의 '잠재적인 4번 후보'로 꼽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카다 아키노부 감독은 일찌감치 "이대호가 4번"이라고 했고, 실전을 치를수록 이같은 분위기는 짙어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오카다 감독은 현지 언론을 통해 "T-오카다는 이대호처럼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대호와의 비교를 통해 T-오카다를 질책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데일리스포츠는 23일 오카다 감독이 하루 전 오키나와 나

하공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오카다는 이대호를 보고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오카다 감독은 9-3 승리로 끝난 20일 야쿠르트와의 연습 경기를 예로 들었다. 그 게임에서 T-오카다는 만루홈런을 터뜨리며 팀 득점의 절반 가까이를 해결했지만, 오카다 감독은 1안타 2볼넷을 얻어낸 4번 이대호를 더 높이 평가하며 2사 1·2루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T-오카다의 세 번째 타석을 지적했다.

오카다 감독은 "T-오카다가 그 상황에서 또 홈런을 노리는 큰 스윙을 했다. 초구부터 타격 균형이 완전히 흔들렸다.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 지난해와 결과가 같을 것이다. 스스로 무너지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퍼시픽리그 홈런왕(33개)에 올

랐던 T-오카다는 지난해에는 타율 0.260, 홈런 16개(리그 6위), 85타점을 기록하며 주춤했다. 오카다 감독은 "그 상황에서는 3점 홈런이 필요 없다. 가볍게 중전 안타를 때려서 썩기 타점을 올리는 게 더 낫다. 그러면 타율도 올라간다"며 앞선 타석의 이대호처럼 상황에 맞게 가볍게 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카다 감독은 "T-오카다는 오 사다하루(현 소프트뱅크 호크스 회장)처럼 홈런을 좋아하는 타자가 가장 많은 볼넷을 얻어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말에는 빼어난 선구안을 과시하며 무리하게 배트를 휘두르는 대신, 볼넷을 얻어 나가고 있는 이대호에게 배워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편집 | 신승수 기자 sss@donga.com 트위터 @sims23

■ 앤서니 기자의 추신수 스토리

추신수 "올 목표는 600타석"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이었지만 2012년 부활을 다짐하고 있는 클리블랜드 추신수의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친 시간이었다.

2011년은 메이저리그 정상에 오르겠다는 꿈을 품고 앞만 보고 달리던 추신수에게 큰 시련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2012년 추신수는 한층 편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추신수는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관점에서 경기를 바라보고 타석에 임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 주변을 살피는 시야가 넓어졌다. 이미 기술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외야 수비와 타격 능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더 단순하다.

추신수는 매년 높은 목표를 정했고 발전해 왔지만 지난해 부상으로 단 85경기 출장에 그쳤다. 추신수는 "올해 목표는 500~600타석을 뛰는 것이다. 부상없이 시즌을 뛰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성적에 대한 부담이 아닌 새로운 시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매니악타 클리블랜드 감독도 162경기 라인업에 매일 추신수의 이름을 쓰고 싶은 마음이다. 악타 감독은 "지난해 추신수가 얻지 못한 시즌 후반 0.340 이상의 타율을 기록할 수 있었다"며 올 시즌 활약을 기대했다.

추신수는 올 시즌 성공을 믿고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 그리고 부상으로 팀에서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마음에 큰 짐이 있었다. 그러나 군사훈련을 통해 정신적으로 한층 성장했다. 몸도 최상이다. 율한 건강을 유지한다면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인디언스가 그들의 우익수에게 바라는 그 모습이다.

MLB.com 기자

KIA, 메이저리그 출신 좌완투수 라미레즈 영입

KIA는 23일, "메이저리그(ML) 출신의 외국인투수 좌완 호라시오 라미레즈(33)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계약금(5만달러)과 연봉(25만달러) 등 총 30만달러(3억3000만원)의 조건이다. 키 186cm, 몸무게 100kg의 라미레즈는 2003년 애틀랜타에서 데뷔한 뒤, 2011시즌에는 LA 에인절스에서 뛰었다. ML 통산성적은 4승35패, 방어율 4.65. KIA는 그간 좌완선발용병투수 영입에 공을 들여 왔다.

프로야구 마케팅 매출 340억

작년 사상 최대 기록...전년보다 36%↑

한국야구위원회(KBO)의 마케팅 자회사 KBOP가 프로야구 출범 30년을 맞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다.

KBOP는 23일 2011년 프로야구 관련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한 340억원을 벌

어들었다고 밝혔다. 2010년 250억원보다 9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KBOP의 연간 수입이 3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KBOP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결과 비용 40억원을 제외하면 이익은 무려 300억원에 이른다.

KBOP의 수입원은 중계권, 스폰서십, 온라인 게임 및 각종 상품 판매 등이다. 입장수입(약 552억원)은 구단별 수입으로 별도 처리돼 KBO나 KBOP와는 무관하다. KBOP

는 지난해 이익금을 관련 회계 규정에서 제외된 NC 다이노스를 제외한 8개 구단에 37억원 가량씩 균등 지급했다.

지난해 KBOP의 중계권 매출은 250억원, 타이틀 스폰서(50억원)를 비롯한 각종 스폰서십 매출은 70억원, 기타 매출은 20억원으로 집계됐다. KBOP는 올해 전년 대비 5~10% 오른 스폰서십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KBOP 류대환 이사는 "처음으로 매출 300억원을 넘어섰지만 5년 뒤, 10년 뒤

1000억원, 2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상 DB를 확보하고 각 구단으로 흩어져있는 프로야구 마케팅을 KBO로 통합하는 등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유령 재정위기의 여파로 올해 국내 경기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구시장은 좋지만 투자할 기업의 여건은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작년 이상의 매출을 내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트위터 @jace2020

신한은행의 4차원 제212-48호 (2012.1.2)

적게 탈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ERGO로 오라!

미일리지 자동차보험(특약 출시)

전혀 보험료만 절약해도 트럭크정리함이 무료요?

2,3월에 보험이 만기라면 ERGO에 전화만 해보세요

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매일 신청은 200명 / 신규고객만 한정)

철두철미한 전화 번호 **1544-1666** ERGO | 에르고다움다이렉트*

b 베스트 남성의원
www.besturo.co.kr

합리적인 비용
전 의료인 남성구성
야간 / 공휴일 예약수술

24 시간 상담전화

강북 구의역점 02-456-5800
베스트 비뇨기과 의원 2호선 구의역 1번 출구

부산 서면점 051-818-7337
베스트 비뇨기과 의원 서면역 9번 출구 영평동서 옆 하나은행 8층

부천 송내점 032-330-0485
베스트 남성의원 송내역 2번 출구(북 광명)롯데리아 3층

안산점 031-405-1831
베스트 남성의원 중앙역 건너 롯데백화점 옆(안산C에서 5분거리)

영등포점 02-2632-0205
베스트 비뇨기과 의원 영등포역 뉴타운 지하상가 6번 출구

의정부점 031-879-7582
베스트 남성의원 의정부역 2번 출구

킹 남성의원
King Mans Uro Clinic

남성 수술의 모든것. 킹 남성의원.

당신의 고민을 24시간 친절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경남 창원점 055-251-1801
창원역 앞 킹 남성의원

부산 연산점 051-852-7870
연산 로터리 킹 남성의원

NAVER [킹남성의원] 검색하세요!!

발기콜, 오르가즘콜

▶ 발기콜 = 병원에서 성기속으로 봉입플라네타하는 것과 같은 원리고, 발기콜은 성기귀두와 몸통일부분은 안 덮어지고, 고환쪽 성기 몸통 일부분에 콘돔을 시를 끼우고, 토시속으로 봉입플라네타가 되기 때문에, 당뇨, 고혈압, 80대, 성기확대자, 조루증 환자, 완전발기불능증도 즉시 발기되고 통증 없고 감각 좋고 길어지고 오르가즘에 오를 때 까지 사정해도 시들지 않고 4시간 발기가 지속되어 아내의 발만증, 우울증, 배설, 의부증, 의치증 없애준다.

▶ 즉시 발기 안되고 조루증 안 없어지면 환불 보장.

▶ 링, 반지, 오링, 성기혈류증전기(펌프)처럼 성기목을 아프게 조이고 성기혈액을 흡수시켜서 영원한 발기불능자로 만드는 제품 아니다.

▶ 끓는 물에 녹는 가짜실리콘 발기콘돔은 독성과 발암물질 때문에 성기와 자궁에 질병과 암발병을 유발시키므로 사용하면 남, 녀 모두 해가된다.

▶ 발기콜은 끓는 물에 소독하는 진짜 실리콘 제품이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특허품(반영구적)

※ 발기약 안먹고 즉시 발기된다.

※ 표시나지 않고, 자연발기와 똑같아서 아내도 속는다.

010-9607-9970, 010-2762-2540, 070-8243-9970
입금 : 농협 351-0180-1510-63 구인숙

관절염 이길 수 있는 건강식품 **無病長壽**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약초보감서로 공부했더니 우리 주위에 많은 식물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과 암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관절에 좋은 식물을 다리고 법제하고... 만들어 지인들에게 주었더니 건강에 좋은 반응이 와서 이같은 아픔으로 고생하시는 모든분들께 권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무병장수'는 국산약초만을 사용하여 다류방송에서 검증된 많은 '약초 효소'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160년 된 약초보감서

원하지않은 아픔때문에 고생하시는분들께 좋은결과가 있다면 누가 해야할일인데... 그동안 많은 약을 드시고도 효험을 보지못한 모든분들께 꼭! 꼭! 권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드시면 건강도 회복되고 또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관절 / 류마티스 / 암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참고로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건강식품입니다.

국민은행 098902-04-161623 이상업
문의 02-534-2502/010-8505-7177